

대학생의 자기에 성향과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 효과*

김태석(金兌錫)**

이기학(李起鶴)***

논문 요약

본 연구는 남녀 대학생 188명(남: 73명, 여: 115명)을 대상으로 외현적 자기에 및 내현적 자기에 성향과 진로 결정수준 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매개 효과 검증을 위해 중다회귀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외현적 자기에와 진로결정수준과의 관계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의해 완전 매개 되었다. 그리고 외현적 자기에를 하위 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추가 분석에서는 리더십/자신감 요인에서 완전 매개 효과가 나타났다. 반면 내현적 자기에에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부분 매개하여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쳤 으며, 내현적 자기에를 하위 요인으로 구분한 추가 분석에서는 하위 요인 중 목표불안정에서 부분 매개 효과가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진로 상담 시 적절한 개입방법과 차별적 처치의 중요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주요어: 진로결정, 외현적 자기에, 내현적 자기에,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매개 효과

* 본 논문은 2012년도 한국장학재단 국가연구장학금(인문사회계)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제1저자,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석사과정

*** 교신저자,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정교수

I. 서론

진로를 결정하는 것은 개인의 삶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다(Tolbert, 1980). 대학생 시기는 학교에서 직업 세계로의 전환을 앞둔 시기로서 다른 발달단계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김봉환, 1997). 실제로 여러 대학에서 실시한 학교생활 실태 조사에서도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은 진로와 직업선택과 관련된 문제였다(김민정, 김봉환, 2007).

이러한 진로와 직업선택에 대한 고민 중 진로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진로미결정(정윤경, 2000)은 대학생들의 정체감을 위협하며, 각종 스트레스와 긴장감을 야기함으로써 부적응 문제를 불러일으킨다(박선희, 박현주, 2009). 그와 같은 맥락에서 진로결정과 미결정을 양극단으로 하는 연속선상의 한 지점(김봉환, 1997)인 진로결정수준이 진로지도나 진로상담과 관련된 분야의 중요한 연구주제(Winer, 1992)인 것은 매우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진로 분야에서 중요한 주제인 진로결정을 이해하기 위해 많은 연구자들은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변인들에 대하여 밝히고자 하였다.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변인은 매우 다양하지만 그 중 하나인 것으로 밝혀진 자기에 성향은 왜곡된 자기개념과 피상적인 대인관계, 부정적 정서 등의 영향으로 진로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성공하거나 물질적 부를 얻기 위해서는 자신이 남보다 우월함을 보여줘야 하고 그를 위해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독특성이나 매력, 그리고 우월함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과시해야 하는 현대의 사회적 흐름 속에서 그 관심이 더욱 증대될 필요가 있는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김진순, 2008). 따라서 앞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자기에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진로결정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진로 심리학 분야에서 반드시 주목해야 할 주제이며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Freud의 이론에서 인간의 심리현상을 설명하는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한 자기에에는 Freud 이후의 정신분석 이론과 임상 실제에서도 그 중요성이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자기에라는 개념은 이론가마다 조금씩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어 그 정의가 명확치 않다. 하지만 자기에 성향이 자기 과장적이며, 자기 몰두적이고, 웅대한 자기개념을 갖고 있으며, 타인의 평가에 민감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이론가들이 동의하고 있다(김진순, 2008). 그런데 자기에 성향은 자기 과대화나 웅대한 자기개념과 같은 외현적인 모습 외에도 두려움과 취약함, 우울이나 열등감과 같은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처럼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자기에 성향에 따라 이론가들은 자기에를 외현적 자기에와 내현적 자기에로 구분하며, 많은 경험적 연구에서도 이를 지지하고 있다(Hendin & Cheek, 1997; Rathvon & Holmstrom, 1996; Wink, 1991).

외현적 자기에 성향을 가진 사람은 웅대한 자기개념을 가지며 그것을 과시하고자 한다. 이들

은 자신의 중요성을 과장되게 지각하며, 성공, 권력, 사랑에 대한 공상을 자주 하고, 자신이 특별 대우를 받기를 바라며, 자신의 목적을 위해 타인을 이용하거나 착취하고, 타인의 감정이나 입장을 공감하지 못하며, 거만한 행동을 보인다. 외현적 자기에와 관련된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외현적 자기에 수준이 높을수록 자존감은 높았고, 우울, 불안, 신경증적 경향성은 낮았다(정남운, 2001b; Emmons, 1984; Raskin, Novacek, & Hogan, 1991; Watson & Biderman, 1993; Watson, Taylor, & Morris, 1987). 그리고 외현적 자기에 성향이 높을수록 자기복합성(김운주, 한성열, 1993)과 창조력(Raskin, 1980)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Freud(1914/1953)와 Kohut(1971)이 자기에 성향이 병리적이지 않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적응적 측면을 언급한 것과도 일치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외현적 자기에 성향의 긍정적인 특성들과 우울, 불안, 신경증적 경향성이 높을수록 진로미결정 수준이 높았던 결과(조애리, 1999; Fuqua, Newman, & Seaworth, 1988; Taylor & Betz, 1983)를 고려할 때 외현적 자기에 성향은 진로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반면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는 거대자기와 특권의식을 억압하는 성향으로 겉으로는 겸손해 보이며, 자기 확신과 주도성이 부족한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이들은 타인의 평가에 예민하며, 불안정하고 소심하며 위축되어 있는 특징을 나타낸다. 이들은 자신의 부족한 점이나 단점을 받아들이지 못하며 그러한 점에서 자기에적이라고 할 수 있다(권석만, 한수정, 2000). 내현적 자기에와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내현적 자기에 수준이 높을수록 자존감은 낮고, 신경증적 경향성은 높았다(정남운, 2001a). 또한 내현적 자기에 수준이 높을수록 불안, 완벽주의 수준이 높고, 강박증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았다(박동숙, 2004). 이와 같이 내현적 자기에에는 주로 부정적인 특성과 관련이 되며, 이는 진로결정에 있어서도 내현적 자기에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는 것을 가늠하게 한다.

실제로 외현적, 내현적 자기에와 진로결정과의 관계에 직접적으로 다룬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외현적 자기에 성향은 진로미결정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김기명, 2010; 송언희, 강연우, 허보연, 하정희, 2008), 내현적 자기에 성향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기명, 2010; 김은석, 2006; 송언희 외, 2008; 홍나영, 2011). 그런데 이러한 외현적, 내현적 자기에 또한 단일한 개념이 아닌 다양한 요인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이며(Emmons, 1984; Raskin & Terry, 1988), 하위 요인들에 따라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김기명, 2010; 김은석, 2006; 송언희 외, 2008). 따라서 외현적, 내현적 자기에의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어 자기에의 하위 요인이 반영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또 다른 변인으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있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자신의 진로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여러 과업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신념이나 유능감을 말한다(Taylor & Betz, 1983). 선행 연구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미결정과 높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Taylor & Betz, 1983), 진로결정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Restubog, Florentino, & Garcia, 2010). 또한 진로태도성숙의 하위 요인 중 결정성 차원과 확신성 차원에 대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은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고(이기학, 한종철, 1998), 이기학과 이학주(2000)는 진로와 관련된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결정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진로결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기에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그 둘 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들은 거의 전무하지만 자기에와 일반적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를 연구한 여러 선행 연구들을 볼 때 자기에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역시 유의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미와 이숙(2009)의 연구에서 내현적 자기에의 하위 요인 중 과민/취약성을 제외한 모든 하위 요인이 일반적 자기효능감을 부적으로 예측하였으며, 박혜진(2003)의 연구에서도 내현적 자기에는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유의한 부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윤조(2002)와 백정림(2009)의 연구에서는 외현적 자기에가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30%이상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밝혀졌다(이은경, 2001). 따라서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해 자기에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역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인지진로이론을 바탕으로 자기에,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개인의 진로결정을 이해하려는 여러 가지 진로이론 중 하나인 사회인지진로이론(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SCCT)은 개인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이 개인의 진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며 개인의 진로가 어떠한 경로로 이루어지는지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개인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이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중요한 매개적 역할을 수행한다(Lent, Brown, & Hackett, 2002). 이러한 사회인지진로이론에 따라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 연구를 종합하여 보면 개인의 성격 특성인 자기에 성향은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데, 자기에 성향과 진로결정수준의 관계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의해 매개되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외현적 자기에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높임으로써 진로결정수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내현적 자기에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낮추고 그로 인해 진로결정수준에 부적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 연구들과 사회인지진로이론에 근거하여 외현적, 내현적 자기에 성향 각각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수준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게 됨을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자기에가 단일 개념이 아닌 포괄적 개념임을 주장하는 연구들(Emmons,

1984; Raskin & Terry, 1988)과 각 자기에가 하위 요인에 따라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랐던 선행 연구(김기명, 2010; 김은석, 2006; 송언희 외, 2008)들을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각 자기에의 하위 요인들에 따라 매개 모형 경로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진로결정과 자기에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중요한 역할을 밝힘으로써 자기에 성향자들의 진로 상담 개입 방향을 마련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현적 자기에와 진로결정수준의 관계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매개하는가?

둘째, 내현적 자기에와 진로결정수준의 관계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매개하는가?

셋째, 자기에의 하위 요인에 따라 매개 모형 경로에 차이가 나타나는가?

II.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학과연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Y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참가자들은 심리학 전공과 교양 수업을 듣는 학생들 중 자발적으로 설문에 참여한 학생들이었다. 수집된 응답 중 불성실한 응답과 누락된 문항이 있는 응답을 제외하고 총 188명(남 73명, 여 115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참가자들의 평균 연령은 22.35세(남 22.93세, 여 21.98세), 표준편차는 2.20세(남 2.34세, 여 2.03세)였으며, 학년별 분포는 1학년 53명(28.2%), 2학년 44명(23.4%), 3학년 45명(23.9%), 4학년 46명(24.5%)이었다.

2. 측정도구

1) 외현적 자기에 측정도구

자기에 검사 도구 중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자기에적 성격검사(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 NPI)는 Raskin과 Hall(1981)에 의해 개발되었다. DSM-III의 자기에적 성격장애에 근거하여 제작된 NPI는 외현적 자기에 경향을 주로 측정하며, 또한 비임상적인 집단을 대상으로 개발한 검사이므로 성격장애로서의 자기에보다는 일반인들의 성격특성으로서의 자기에를 측정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원래 54문항이었던 NPI는 Raskin과 Terry(1988)에 의해 40문

항으로 단축되었고, 한수정(1999)은 이를 변안하여 자신의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그리고 정남운(2001b)은 한수정(1999)이 변안한 NPI의 요인구조를 분석하여 기존의 40문항에서 8문항을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남운(2001b)의 32문항 NPI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리더십/자신감(10문항), 권력욕구/특권의식(9문항), 과시/칭찬욕구(9문항), 우월의식(4문항)의 4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며, 각 문항은 두 가지 문장 중 한 가지를 선택하게 하는 이분법적 강제선택형이다. 또한, 전체 점수가 높을수록 외현적 자기에 성향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남운(2001b)의 연구에서 전체 척도의 Cronbach's α 는 .85, 하위 요인별로는 리더십/자신감 .70, 권력욕구/특권의식 .73, 과시/칭찬욕구 .68, 우월의식 .65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척도의 Cronbach's α 가 .87, 하위 요인별로는 리더십/자신감 .73, 권력욕구/특권의식 .72, 과시/칭찬욕구 .69, 우월의식 .60이었다.

2) 내현적 자기에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내현적 자기에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내현적 자기에 척도(Covert Narcissism Scale : CNS)는 Akhtar와 Thomson(1982)의 자기에적 성격장애의 임상적 특성을 기반으로 하여 강선희와 정남운(2002)이 개발한 것이다. 이 척도는 목표불안정(9문항), 인정욕구/거대자기 환상(9문항), 착취/자기중심성(9문항), 과민/취약성(10문항), 소심/자신감 부족(8문항)의 5개의 하위 요인에 총 4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중 자신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표기하게 한다. 전체 점수가 높을수록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강선희와 정남운(2002)의 연구에서 전체 척도의 Cronbach's α 는 .90, 하위 요인별로는 목표불안정 .80, 인정욕구/거대자기 환상 .81, 착취/자기중심성 .74, 과민/취약성 .80, 소심/자신감 부족 .77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척도의 Cronbach's α 가 .92였으며, 하위 요인별로는 목표불안정 .92, 인정욕구/거대자기 환상 .79, 착취/자기중심성 .77, 과민/취약성 .84, 소심/자신감 부족 .81로 나타났다.

3)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측정도구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척도(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 CDMSE)는 Taylor와 Betz(1983)에 의해 개발되었고, 이후 Betz와 Voyten(1997)이 각 하위 요인별로 5개의 문항을 선별하여 기존의 척도를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단축형 척도(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Short Form : CDMSE-SF)로 수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이은진(2001)이 변안한 것을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직업정보수집, 목

표설정, 계획수립, 문제해결, 자기평가 5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며 각 하위 요인별로 5문항씩 총 2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은진(2001)의 연구에서 전체 척도의 Cronbach's α 는 .92였으며 하위 요인별로는 직업정보수집 .81, 목표설정 .85, 계획수립 .84, 문제해결 .74, 자기평가 .83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척도의 Cronbach's α 는 .90, 하위 요인별로는 직업정보수집 .71, 목표설정 .75, 계획수립 .79, 문제해결 .75, 자기평가 .70이었다.

4) 진로결정수준 측정도구

진로결정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Osipow, Carney, Winer, Yanico와 Koschier(1976)가 개발한 진로결정수준검사(Career Decision Scale ; CDS)를 고향자(1992)가 변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4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4=매우 그렇다)의 자기보고식 18문항과 앞에서 반응한 내용을 명료화시키는 자유반응 1문항의 총 19문항으로 구성된다. 자기보고식 검사는 진로선택에 대한 확신성을 측정하는 2문항과 진로미결정의 전제조건을 확인하는 1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확신성 측정 문항과 자유반응 문항을 제외한 16문항만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또한, 점수를 역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하도록 하였다. 고향자(1992)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6, 반분신뢰도는 .80,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79였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86이었다.

3.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는 188명의 자료를 통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SPSS 18.0을 사용하였다. 척도의 신뢰도 분석을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한 내적 일치도를 측정하였으며, 연구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고 기술통계량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각 연구 변수간의 상관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자기애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고, 매개 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하여 Sobel(1982) 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중다회귀분석을 이용한 매개 효과 분석은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방법과 함께 매개 효과 검증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다(Frazier, Tix, & Baron, 2004).

III. 결과

1. 측정 변인의 상관계수 및 평균(표준편차)

상관분석을 통해 측정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측정 변인들의 총점 간에 모두 유의한 관계가 나타났다. 그런데 각 자기애의 하위 요인의 상관관계는 총점에서의 상관관계와는 다른 양상이 나타났다. 외현적 자기애 총점과 내현적 자기애 총점의 관계에서 부적인 결과($r=-.158, p<.05$)가 나타난 것과 같이 내현적 자기애의 목표불안정은 외현적 자기애의 리더십/자신감($r=-.362, p<.01$), 우월의식($r=-.186, p<.05$)과 부적 관계를 보였고, 과민/취약성은 외현적 자기애의 리더십/자신감($r=-.399, p<.01$)과 부적 관계가 나타났다. 또한 소심/자신감 부족은 외현적 자기애의 모든 하위 요인과 부적 관계를 보였다($r=-.697, p<.01$; $r=-.313, p<.01$; $r=-.347, p<.01$; $r=-.409, p<.01$). 반면 내현적 자기애의 인정욕구/거대자기 환상은 외현적 자기애의 권력욕구/특권의식($r=.336, p<.01$), 과시/칭찬욕구($r=.293, p<.01$)와 정적 관계가 있었고, 착취/자기중심성은 외현적 자기애의 모든 하위 요인(리더십/자신감, 권력욕구/특권의식, 과시/칭찬욕구, 우월의식)과 정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191, p<.01$; $r=.311, p<.01$; $r=.201, p<.01$; $r=.223, p<.01$).

<표 1> 측정 변인들의 상관계수 및 평균(표준편차)

	1	1①	1②	1③	1④	2	2①	2②	2③	2④	2⑤	3	4
1													
1①	.828**												
1②	.791**	.498**											
1③	.774**	.432**	.507**										
1④	.714**	.619**	.378**	.446**									
2	-.158*	-.385**	.062	-.019	-.126								
2①	-.226**	-.362**	-.062	-.084	-.186*	.784**							
2②	.231**	-.027	.336**	.293**	.121	.654**	.309**						
2③	.294**	.191**	.311**	.201**	.223**	.512**	.230**	.314**					
2④	-.188**	-.399**	.032	-.057	-.131	.870**	.575**	.523**	.317**				
2⑤	-.577**	-.697**	-.313**	-.347**	-.409**	.731**	.549**	.311**	.070	.643**			
3	.334**	.415**	.145*	.193**	.295**	-.496**	-.672**	-.106	.000	-.388**	-.484**		
4	.170*	.294**	.072	.013	.136	-.601**	-.762**	-.338**	-.149*	-.403**	-.408**	.615**	
M	46.03	14.01	12.59	13.85	5.58	131.30	24.37	31.54	21.49	30.10	23.79	86.53	43.06
(SD)	(6.33)	(2.46)	(2.23)	(2.18)	(1.18)	(22.17)	(7.44)	(5.08)	(5.43)	(6.99)	(5.67)	(12.46)	(7.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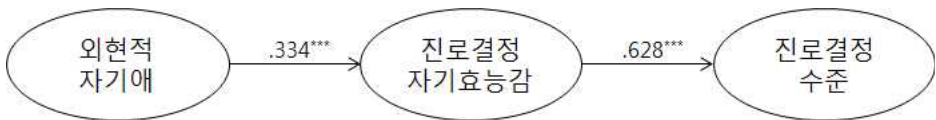
1:외현적 자기애 총점, 1①:리더십/자신감, 1②:권력욕구/특권의식, 1③:과시/칭찬욕구, 1④:우월의식, 2:내현적 자기애 총점, 2①:목표불안정, 2②:인정욕구/거대자기 환상, 2③:착취/자기중심성, 2④:과민/취약성, 2⑤:소심/자신감 부족, 3:진로결정자기 효능감, 4:진로결정수준

* $p < .05$, ** $p < .01$.

2. 자기에와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 효과 검증

자기에와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매개 변인으로 작용하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방법에 의거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들이 제시한 방법에 따르면 매개 효과에 대한 가설 검증을 위해서는 3단계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 번째 단계로 독립 변인이 매개 변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하고, 두 번째 단계로 독립 변인의 종속 변인에 대한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해야 하며, 마지막 단계로 독립 변인과 매개 변인이 모두 투입된 상태에서 종속 변인에 대한 매개 변인의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해야 한다. 그런데 이 때 종속 변인에 미치는 독립 변인의 영향력이 두 번째 단계에서의 영향력보다 줄어들어야 매개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줄어든 영향력이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할 경우 부분 매개 효과, 유의하지 않을 경우 완전 매개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외현적 자기에와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 효과를 검증한 결과를 단계적으로 살펴보면 독립 변인인 외현적 자기에가 매개 변인인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해야 한다는 매개 효과 검증의 첫 번째 단계가 충족되었다($\beta = .334, p < .001$). 다음으로 독립 변인인 외현적 자기에가 종속 변인인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해야 하는 두 번째 단계 역시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170, p < .05$). 마지막으로 독립 변인인 외현적 자기에와 매개 변인인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모두 투입된 상태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종속 변인인 진로결정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하는 세 번째 단계도 충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628, p < .001$). 그리고 이 때 독립 변인인 외현적 자기에가 종속 변인인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이 두 번째 단계보다 줄어들었으며 더 이상 진로결정수준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하였다($\beta = .170, p < .05 \rightarrow \beta = -.040, ns$). 이러한 결과는 외현적 자기에와 진로결정수준과의 관계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완전 매개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매개 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Sobel(1982)이 제시한 방법으로 매개 효과의 유의성을 계산하였다. 그 결과 외현적 자기에와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Z = 4.378, p < .001$). 본 분석에서 검증된 매개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외현적 자기에,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의 매개 모형

추가적으로 외현적 자기에를 하위 요인으로 구분하여 매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두 번째 단

계와 세 번째 단계에서 독립변인으로 외현적 자기에의 하위 요인을 투입하였다. 그 결과 외현적 자기에의 하위 요인 중 리더십/자신감이 두 번째와 세 번째 단계를 충족하였으며, 세 번째 단계에서 리더십/자신감의 영향력이 더 이상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완전 매개 효과를 보였다($\beta = .392, p < .001 \rightarrow \beta = .145, ns$). Sobel 검증 결과에서도 매개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Z=4.036, p < .001$). 외현적 자기에 및 하위 요인과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외현적 자기에 및 하위 요인과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 효과 검증

예언변인	비표준화계수		β	t	$R^2(\text{adj. } R^2)$	F
	B	SE				
1 외현적 자기에	0.203	.087	.170	2.346*	.029(.024)	5.505*
2 외현적 자기에	-0.048	.074	-.040	-0.654	.379(.373)	56.532***
진로결정자기효능감	0.383	.037	.628	10.222***		
1 리더십/자신감	1.209	.296	.392	4.084***		
권력욕구/특권의식	-0.179	.296	-.053	-0.604	.105(.086)	5.383***
과시/칭찬욕구	-.396	.300	-.114	-1.323		
우월의식	-.228	.590	-.036	-0.386		
2 리더십/자신감	0.447	.256	.145	1.748		
권력욕구/특권의식	0.034	.244	.010	0.141		
과시/칭찬욕구	-0.483	.246	-.139	-1.965	.401(.385)	24.409***
우월의식	-0.468	.485	-.073	-0.964		
진로결정자기효능감	0.366	.039	.601	9.489***		

* $p < .05$, ** $p < .01$, *** $p < .001$.

내현적 자기에의 경우 외현적 자기에와 같이 첫 번째 단계($\beta = -.496, p < .001$)와 두 번째 단계($\beta = -.601, p < .001$), 그리고 세 번째 단계($\beta = .420, p < .001$)를 모두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내현적 자기에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모두 투입된 세 번째 단계에서 진로결정수준에 대한 내현적 자기에의 영향력이 두 번째 단계보다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유의하였다($\beta = -.601, p < .001 \rightarrow \beta = -.392, p < .001$). 이것은 내현적 자기에와 진로결정수준의 관계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의해 부분 매개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Sobel 검증을 통해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매개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Z=-5.161, p < .001$). 본 분석에서 검증된 매개 모형을 [그림 2]에 제시하였다.



[그림 2] 내현적 자기에,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의 매개 모형

추가적으로 내현적 자기에를 하위 요인으로 구분하여 매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두 번째 단계와 세 번째 단계에서 내현적 자기에를 하위 요인으로 구분하여 투입하였다. 그 결과 내현적 자기에의 하위 요인 중 목표불안정이 두 번째와 세 번째 단계를 충족하였으며, 세 번째 단계에서 목표불안정의 영향력이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유의하여 부분 매개 효과를 보였다($\beta = -.791, p < .001 \rightarrow \beta = -.648, p < .001$). 인정욕구/거대자기 환상의 경우 세 번째 단계에서 베타계수가 감소하지 않아 매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176, p < .01 \rightarrow \beta = -.201, p < .001$). 이러한 매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Sobel 검증 결과에서도 목표불안정의 경우 매개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지만($Z = -3.312, p < .001$), 인정욕구/거대자기 환상은 유의하지 않았다($Z = 1.560, ns$). 내현적 자기에 및 하위 요인과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내현적 자기에 및 하위 요인과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 효과 검증

예언변인	비표준화계수		β	t	$R^2(\text{adj. } R^2)$	F
	B	SE				
1 내현적 자기에	-0.206	.020	-.601	-10.252***	.361(.358)	105.097***
2 내현적 자기에	-0.134	.021	-.392	-6.516***	.494(.489)	90.312***
진로결정자기효능감	0.256	.037	.420	6.973***		
1 목표불안정	-0.807	.061	-.791	-13.204***		
인정욕구/거대자기	-0.264	.083	-.176	-3.196**		
착취/자기중심성	0.066	.072	.047	0.917	.604(.594)	55.632***
과민/취약성	0.146	.079	.134	1.843		
소심/자신감 부족	-0.011	.087	-.008	-0.125		
2 목표불안정	-0.661	.072	-.648	-9.126***		
인정욕구/거대자기	-0.300	.081	-.201	-3.690***		
착취/자기중심성	0.026	.070	.018	0.363	.630(.618)	51.335***
과민/취약성	0.148	.077	.137	1.929		
소심/자신감 부족	0.041	.086	.031	0.480		
진로결정자기효능감	0.138	.039	.226	3.523***		

* $p < .05$, ** $p < .01$, *** $p < .001$.

IV. 논의

본 연구는 자기애,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 외현적, 내현적 자기애와 진로결정수준의 관계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의해 매개되는지 검증하고 추가적으로 각 자기애의 하위 요인에 따라 매개 모형의 경로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측정 변인들 간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측정 변인들의 총점 간에는 모두 유의한 관계가 나타났다. 그런데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의 총점의 경우 부적인 관계가 나타났으나 하위 요인 간 상관관계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내현적 자기애의 목표불안정과 과민/취약성은 대체로 외현적 자기애의 하위 요인들과 부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심/자신감 부족은 모든 외현적 자기애의 하위 요인들과 부적인 관계로 나타났다. 하지만 인정욕구/거대자기 환상은 외현적 자기애의 권력욕구/특권의식, 과시/칭찬욕구와 정적인 관계를 나타냈고, 착취/자기중심성은 외현적 자기애의 모든 하위 요인과 정적인 관계로 나타났다. 이것은 내현적 자기애가 외현적 자기애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으나 기저에 있는 핵심 특성들은 공유하고 있다는 송언희 외(2008)의 의견과도 일치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매개 효과 분석 결과, 외현적 자기애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완전 매개하여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외현적 자기애를 하위 요인으로 구분하여 매개 효과를 살펴본 결과 외현적 자기애의 리더십/자신감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완전 매개 효과가 나타났다. 외현적 자기애와 그 중에서도 리더십/자신감이 진로결정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 결과는 김기명(2010)과 송언희 외(2008)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병리적이지 않은 자기애의 긍정적 특성을 언급한 Freud(1914/1953)와 Kohut(1971)와 의견과도 부합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외현적 자기애 성향자들의 특성인 리더십이나 자신감이 진로결정과 관련된 자신감에 영향을 주어 진로결정에 있어서도 주도적이고 확신을 갖게 함으로써 그들의 진로결정수준을 높인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내현적 자기애의 경우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내현적 자기애와 진로결정수준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현적 자기애를 하위 요인으로 구분하여 매개 효과를 추가 분석한 결과, 목표불안정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부분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현적 자기애와 그 중에서도 목표불안정이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러한 결과 역시 선행 연구와 일치하는 것이다(김기명, 2010; 김은석, 2006; 송언희 외, 2008). 그리고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들의 목표설정에 어려움을 겪고 자신의 직업적, 사회적 정체성을 형성하지 못한 채 불만족하는 성향이 진로결정과 관련된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유능감

을 떨어뜨려 진로결정수준 역시 낮추고, 그와 동시에 그러한 성향 자체도 진로결정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과를 종합해보면 자기에와 진로결정수준과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매개 변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개인 내 심리적 변인인 외현적, 내현적 자기가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자기에 성향의 영향으로 증가되거나 감소됨으로써 진로결정수준을 높이거나 낮추는데 기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각 자기에의 하위 요인에 따라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과 과정에 차이가 있음을 검증한 본 연구는 선행 연구들(김기명, 2010; 김은석, 2006; 송언희 외, 2008; Emmons, 1984; Raskin & Terry, 1988)과 함께 자기에 연구에서 하위 요인을 고려해야 함을 다시 한 번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외현적 자기에의 리더십/자신감과 내현적 자기에의 목표불안정에서 매개 모형 경로가 나타난 결과와, 내현적 자기에의 인정욕구/거대자기 환상이 목표불안정과 달리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매개하지 않고 진로결정수준에 직접 영향을 미친 결과는 외현적, 내현적 자기가 다양한 특성을 가진 하위 요인으로 구성된 포괄적 개념임을 잘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자기에 연구에서 각 자기에를 단순히 총점으로 살펴볼 것이 아니라 하위 요인으로 구분하여 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첫째, 현대 사회에서 만연하고 있는 자기에에 대한 연구들이 대부분 우울, 불안, 분노 등의 부정 정서나 대인 관계 특성, 그리고 개인의 자존감과 관계에 집중해왔던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삶에서 중대한 결정 중 하나인 진로결정, 즉 진로결정수준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초점을 두어 자기에와 진로결정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켰다. 둘째, 사회인지진로이론에 근거하여 자기에,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 세 변인 간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자기에라는 개인적 성격 변인과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 변인으로써의 역할을 명확히 밝히고 사회인지진로이론의 경험적 증거를 제시하였다. 셋째, 자기에의 하위 요인을 구분하여 살펴봄으로써 자기가 다양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 요인에 따라 진로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짐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진로 상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점차 증가하는 자기에 성향자들의 진로를 지도하기 위해서 상담자는 우선 자기에 성향이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외현적 자기에와 내현적 자기에를 구분하여 외현적 자기에 성향이 진로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내현적 자기에 성향은 진로결정에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는 성격 변인임을 이해해야 한다. 그를 바탕으로 외현적 자기에 성향 내담자와 내현적 자기에 성향 내담자에게 차별적인 개입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각 자기가 보이는 세부적 특성에 따라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다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외현적 자기

에 성향자의 다양한 모습 중 자신감 있고, 자기 확신에 차 있는 모습은 진로결정에 대한 자신감을 제고함으로써 진로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해하여 내담자의 그러한 성향이 진로결정에 지속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반면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가 목표를 설정하지 못하고 불확실한 정체성과 그것에 불만족하는 성향은 그 자체로 진로결정에 어려움을 야기할 뿐 아니라 진로결정에 대한 자신감을 떨어뜨림으로써 진로결정을 방해하므로 상담자는 이를 이해하고 내담자와 공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상담자는 내담자의 목표불안정 성향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내담자가 사회적, 직업적 정체성을 형성함으로써 뚜렷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한다. 그와 동시에 내담자가 자기효능감 향상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함으로써 내담자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외현적 자기에 성향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과의 긍정적인 관계가 나타났는데 이것이 표면적인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 Campbell, Goodie와 Foster(2004)의 연구에 따르면 외현적 자기에 성향자들은 결과가 정확하지 않았음에도 결과를 과신하는 경향성을 보였고, 그들의 미래 수행에 대한 예측은 실제 수행에 근거하기보다 수행에 대한 기대에 근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현적 자기에 성향자들의 높은 자존감은 방어적이며, 그들의 이상적 자기의 내용은 공격성, 경쟁성 등의 병리적인 측면이 있다는 연구 결과(Emmons, 1984; Raskin & Terry, 1988)를 고려할 때 외현적 자기에와 진로 관련 변인 간의 긍정적인 관계는 심도 깊은 후속 연구를 통해 자세히 밝혀질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서울에 소재한 Y 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모든 분석이 이루어졌다. Y대학 학생들이 자기에나 진로 관련 변인에 있어 특정 성향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연구의 일반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강선희, 정남운 (2002). 내현적 자기에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4), 969-990.
- 고향자 (1992). **한국 대학생의 의사결정유형과 진로결정수준의 분석 및 진로결정 상담의 효과**.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권석만, 한수정 (2000). **자기애성 성격장애**. 서울: 학지사.
- 김기명 (2010). **자기애와 역기능적 진로사고에 따른 진로미결정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민정, 김봉환 (2007). 불안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 연구**, 20(1), 13-25.
- 김봉환 (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김윤주, 한성열 (1993). 자기애적 성격과 자기복합성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7(1), 28-36.
- 김은석 (2006). **내현적 자기애와 사회적 지지가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 김진순 (2008). **성공-실패 피드백에 따른 외현 및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의 부적 정서, 자존감, 능력귀인 연구**.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 송언희, 강연우, 허보연, 하정희 (2008). 자기제시동기에 따른 자기애와 진로미결정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3), 819-838.
- 박동숙 (2004). **내현적 자기애와 불안, 완벽주의, 강박증상간의 관련성**.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박선희, 박현주 (2009). **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와 대처방식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6(1), 67-81.
- 박혜진 (2003). **자기애, 자기효능감, 자의식 및 우울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아주대학교 대학원.
- 백경림 (2009). **자기애와 자기효능감이 분노 및 분노표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 이기학, 이학주 (2000). **대학생의 진로 태도 성숙 정도에 대한 예언 변인으로서의 자기-효능감 효과 검증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2(1), 127-136.

- 이기학, 한종철 (1998). 고등학생의 진로태도성숙과 개인적 특성 및 심리적 변인들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0(1), 167-189.
- 이상미, 이숙 (2009). 내현적 자기에와 청소년의 우울 및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 **놀이치료연구**, 13(2), 15-28.
- 이윤조 (2002). 자기애적 성격특성과 자기효능감 및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 이은경 (2001). 자기효능감이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이은진 (2001). 다재다능한 대학생을 위한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정남운 (2001a). 과민성 자기에 척도(HSNS)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1), 193-216.
- 정남운 (2001b). 자기애적 성격검사의 요인구조와 아이젠크 성격차원 및 자존감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2), 221-237.
- 정윤경 (2000). 고등학생의 진로결정 유형 이해를 위한 탐색적 연구. **직업능력개발연구**, 3, 144-168.
- 조애리 (1999).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탐색행동과 성격5요인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한수정 (1999). 자기애적 성격성향자의 외현적·내현적 자기관련 인지특성.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홍나영 (2011).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 양육 태도와 진로미결정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Akhtar, S. & Thomson, J. A. (1982). Overview: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9(1), 12-20.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etz, N. E. & Vuyten, K. K. (1997). Efficacy and outcome expectation influence career exploration and decidedness.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6(2), 179-189.
- Campbell, W. K., Goodie, A. S. & Foster, J. D. (2004). Narcissism, confidence, and risk attitude. *Journal of Behavioral Decision Making*, 17(4), 297-311.
- Emmons, R. A. (1984). Factor analysis and construct validity of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8(3), 291-300.
- Frazier, P. A., Tix, A. P. & Barron, K. E. (2004). Testing moderator and mediator effects in

- counseling psycholog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1(1), 115-134.
- Freud, S. (1914/1953). *On Narcissism: An Introduction*. London: Hogarth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914).
- Fuqua, D. R., Newman, J. L. & Seaworth, T. B. (1988). Relation of state and trait anxiety to different components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5(2), 154-158.
- Hendin, H. M. & Cheek, J. M. (1997). Assessing hypersensitive narcissism: A reexamination of Murray's narcissism scal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1(4), 588-599.
- Kohut, H. (1971). *The analysis of the self*.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Lasch, C. (1989). *나르시시즘의 문화(최경도 역)*. 서울: 문학과 지성사.
- Lent, R. W., Brown, S. D. & Hackett, G. (2002).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In D. Brown & Associate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4th ed., pp. 255-311). San Francisco: Jossey-Bass.
- Osipow, S. H., Carney, C. G., Winer, J. L., Yanico, B. & Koschier, M. (1976). *The Career Decision Scale*.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Raskin, R. (1980). Narcissism and creativity: Are they related? *Psychological Reports*, 46(1), 55-60.
- Raskin, R. & Hall, C. S. (1981).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Alternative form reliability and further evidence of construct validit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5(2), 159-162.
- Raskin, R. & Terry, H. (1988). A principal-components analysis of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and further evidence of its construct valid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5), 890-902.
- Raskin, R., Novacek, J. & Hogan, R. (1991). Narcissism, self-esteem, and defensive self-enhancement. *Journal of Personality*, 59(1), 19-38.
- Rathvon, N. & Holmstrom, R. W.(1996). An MMPI-2 portrait of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66(1), 1-19.
- Restubog, S. L. D., Florentino, A. R. & Garcia, P. R. J. M. (2010). The mediating roles of career self-efficacy and career decidednes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ontextual support and persisten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7(2), 186-195.
- Sobel, M. E. (1982). Asymptotic confidence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Sociological Methodology*, 13, 290-312.
- Tolbert, E. L. (1980). *Counseling for Career Development (2nd ed)*. MA: Houghton Mifflin

Company.

- Taylor, K. M. & Betz, N. E. (1983). Applications of self-efficacy theory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2(1), 63-81.
- Watson, P. J. & Biderman, M. D. (1993).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factors, splitting, self-consciousnes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61(1), 41-57.
- Watson, P. J., Taylor, D. & Morris, R. J. (1987). Narcissism, sex roles, and self-functioning. *Sex Roles*, 16(7/8), 335-350.
- Winer, J. L. (1992). The early history of the career decision scal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0(4), 369-375.
- Wink, P. (1991). Two faces of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4), 590-597.

* 논문접수 2012년 11월 4일 / 1차 심사 2012년 12월 3일 / 게재승인 2011년 12월 14일

* 김태석: 연세대학교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교 일반대학원 심리학과에서 학교 및 진로상담 전공으로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 E-mail: rongnyong@naver.com

* 이기학: 연세대학교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심리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동 대학원 심리학과에서 학교심리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정교수로 재직 중이다.

* E-mail: khlee2445@yonsei.ac.kr

Abstract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in the Relation between Narcissism and Career Decision Level in College Students*

Kim Tae-suk**

Lee Ki-Hak***

The current study examined the mediation effect of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CDMSE) in the relation between a person's overt/covert narcissism tendency and career decision level. 188 college students (73 males, 115 females) participated in the study. Using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current study found that CDMSE fully mediated between overt narcissism and career decision level. Additional analysis were performed dividing the overt narcissism tendency into sub-categories. The results showed that CDMSE fully mediated between leadership/confidence and career decision level. On the other hand, covert narcissism partially mediated CDMSE, affecting the career decision level. In the additional analysis dividing covert narcissism into sub-categories, there was a partial mediation effect of CDMS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goal instability and career decision level. Based on the results, the current study further discussed the appropriate intervention methods and the importance of discriminative treatment.

Key words: Career decision level, Narcissism,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 This study was financially supported by research fund of Korea Student Aid Foundation.

** First author, Graduate Student, Departmen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Departmen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